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4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12. 28(목) 16:00~17:36
- 장 소 :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로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하셨고요. 임향빈 기획조정부 대리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 23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중에서 현재 위원장님을 포함한 10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방금 보고를 받으신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 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결과는 회의자료 4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44차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이 되었고, 제345차 전체회의는 서면으로 개최되었는데 1건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마찬가지로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성과공유 워크숍 이후 개최된 제346차 전체회의의 경우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3건 모두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방금 전차 회의 보고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드리는 사이에 전고필 위원께서 4시 3분에 접속하셨습니다. 위원장 포함 11인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시 03분 전고필 위원 회의참여)

**박종관 위원장** : 방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전차 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차 회의 주요 결과 5건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84호 2023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시백 위원님 외에 10인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상정되었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총괄하여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안건번호 제984호 2023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정시공모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을 결정하는 건이고요. 이번 공모에는 총 7,161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664건에 총지원결정액 542억 2,900만 원을 확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8페이지부터입니다.

심의의 진행 프로세스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가 필요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에 공모사업의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후 9월 30일에 공고가 나가서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총 7,389건의 지원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7,161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연도 중반에 진행되던 공모사업들을 이번 공모에서는 다 통합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신청 건수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접수 결과는 저희가 12월 9일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접수된 현황과 신청자 유형별 내용들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 방식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주요 개선 내용은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 전반과 심의위원 구성 및 위촉 절차 그리고 심의방식, 심의 결과 안내 등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의 지역균형지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보면 창작 분야에서는 26%, 향유 분야에서는 34%로 비수도권의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 중반을 보시면 이번에 선정되는 적용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창작 분야에서는 비수도권의 선정비율이 27.7%, 향유 분야에는 34.4%로 창작 분야와 향유 분야 모두 신청 비율 이상으로 비수도권 사업들이 선정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심의 추진 결과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전 과정에 참여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같음 하도록 하고 12페이지 하단의 구성 현황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총 56개의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통합해서 공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가장 많은 심의위원회와 가장 많은 심의위원이 참여한 심의였습니다. 총 56개의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 303인이 참여해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총 303인의 심의위원 중에 235인은 심의위원 후보단 그러니까 심의위원 풀에 포함된 분이었고요. 전담심의위원은 후보단에 포함된 분을 포함해서 총 67명 그리고 기타로 기관 전담 노무사 1인으로 총 303명의 심의위원이 이번 지원심의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의 비율을 보시면 지역별 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정확하게 7:3의 비율로 참여하였고요.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 그리고 연령에서 50대 이상과 40대 이하의 비율이 거의 동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심의위원들 세부 구성은 별첨1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심의회 회의의 추진입니다. 회의자료에는 지금 각 사업별로 심의가 진행되었던 일정이 개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1월 21일에 심의를 시작해서 12월 16일까지 총 4주간 매일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개별 일정들은 1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각 사업별 심의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주간의 심의 결과 16페이지 하단의 3번부터 사업별·분야별 지원 심의결과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16페이지 하단에 (가)분야별 지원결정 총괄 현황을 보시면 각 장르별, 각 분야별 신청 대비 선정된 내역의 총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부터는 각 공모사업별, 각 개별사업의 지원 결정 현황입니다. 지금 총괄표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저희가 별첨2, 별첨3의 자료에 각 사업별 지원심의회 결과와 지원심의회 결정서 그러니까 지원심의회 결정 내역서를 별도의 자료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2와 별첨3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각 사업별 선정내역의 총괄표가 되었고요. 21페이지부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선정현황을 총괄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오늘 안건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지금 저희가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발표 준비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의결이 되면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신청하신 대상들에게는 문자로 결과발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음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홈페이지 공지 이후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될 때는 선정된 사업내용과 함께 심의 추진경과 그리고 심의위원 종합심사평, 향후 진행사항 등이 같이 공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오늘 결과발표일로부터 1달 이내에 미정산의 경우에는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선정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격자의 경우에도 이 결과발표 이후에 지원 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조치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 정종열 위원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들립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못 드렸습시다만, 전면 온라인으로 하는 회의이고 안전보고자들이 나주 본청 대회의실에서 보고하는 형식이고요. 참관하는 많은 사무처 직원들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회의를 참관하는 분도 있는 관계로 온라인 회선이 잘못될 경우라면 회의를 멈추고 회선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총괄부장의 보고가 있는 도중에 위원 1인이 접속해 주셔서 지금은 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6시 05분 정유란 위원 회의참여)

**박종관 위원장 :** 정종열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 :** 예, 8페이지에 지원신청 접수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 절차 시기 조정 때문에 감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다윈은 어차피 그때 그 사유로 좀 줄어든 것이 이해는 되는데 문학에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잔여 예산이 나오는데 특히 국제교류에서 잔여 예산이 꽤 남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에 대한 이유라든지 남은 잔여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정종열 위원님께서 문학 부분의 지원신청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와 국제 분야에서 잔여 예산이 발생한 이유와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학지원부장이 온라인 접속을 한 상태인가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문학부터 질의 사항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2년도 사업부터 다년제로 전환이 돼서 다년제 유형에 선정된 단체는 지금 제외가 된 것입니다. 지원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예지 사업이라든지 집필공간사업들은 다년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년제를 제외하고 단년 그러니까 올해 공모가 발생하는 사업유형에 한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은 현재 본청 대회의실에 직접 참석하고 있어서 국제교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사업은 7개 장르별로 배분을 하는데 레지던스 같은 경우 음악 분야의 비지정형은 아예 접수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형 1건만 선정했기 때문에 음악 분야에서 일부 잔여 예산이 있었어요. 시각 분야의 경우에도 저희가 어차피 별도 공모를 4월에 예정하고 있기에 그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선정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이 되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백 위원** : 앞서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앞선 회의에서 다년도 수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통계를 잡을 경우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부장님께서 이를 개선해서 괄호 속에 총 누적 수를 같이 병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조차 이렇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내건 대외건 괄호로 총 누적 실적을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지원총괄부장님께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안 그래도 전차 접수 결과를 보고드릴 때 이시백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수를 병기하면 전체 건수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8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 “기선정된 다년간 사업은 제외함.” 이렇게 명시하였고요. “기선정된 다년간 사업은 제외함.”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접수 결과를 보고드릴 때 이시백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표 하단에 명시하였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건수 등을 같이 포함하여 병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전체 건수의 총합 부분에 다년간 사업이 문학 외에도 있습니다. 통일된 데이터에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아래의 이 방식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학만 따로 떼어서 다년간을 포함할 수 없고 다른 부분에 있는 다년간 사업 역시로 이와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2·3년차 다년간의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시백 위원님 답변되셨나요?

**이시백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 2023년도 신청현황이 올해 다년으로 지원받는 분들을 포함했을 때 총 몇 건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게 제시가 안 된다면 밑에 따로 분리해서라도 올해 지원하는, 신청되는 통계자료가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나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일단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고민했는데요. 사업마다 다년간의 트랙

은 다른 것이고 실제로 신청 접수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올해 다년간 사업은 접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명시하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접수 받은, 이전에 신청된 다년간에 대한 건수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게 자료를 만든 점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시백 위원 :**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지원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매해 중간평가나 문제가 있는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매해 신청하는 형식의 절차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지속되는 또는 2년간 지속되는 분들도 당해연도에 새로 신규 하는 분과 병합해서 총 신청수 통계가 제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문제는 동일 사업 기준으로 넘어가서 “기선정된 몇 건의 다년간 사업은 제외함.”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문제로 일단 보여지거든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태로 “몇 건의 기선정된 다년간 사업은 제외함”이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도 지금의 오류는 극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시백 위원 :** 실무의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3년간 지원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나는 3년 동안 당연히 받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속에서 당연히 의결은 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와 함께 요식적으로 포함되고 중간평가의 절차들도 필요하다면 보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별도로 하단에 표기하여 혼돈이나 오류를 적게 할 방법을 찾으라는 게 주문인 것 같고요.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으면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요. 그렇게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표시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빼서 저희가 안내할 텐데요. 다만, 의결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발표를 하고 보조적으로 기존 3년, 2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해서 지원된다는 형식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보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선정된 다년간 사업은 추후 안내함.” 이 정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정숙 위원** : 지금 접수 현황표 자체는 바꾸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접수현황 왼쪽에 있는 장르에 있어서 다년간 사업이 있는 장르에 별표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 문학 분야는 기 다년간 사업이 몇 건이 있다. 그러니까 3년간 사업은 몇 건, 2년간 사업은 몇 건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공연이면 공연에 몇 건의 3년간 혹은 2년간 사업이 있다고 명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각 장르에 별표를 하시라는 거죠. 장르 뒤에 별표를 붙인 후에 그 밑에 설명을 해 주셔야 장르를 볼 때 그 숫자가 적거나 많다는 오해를 밑으로 가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그래서 정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인 표를 그렇게 고친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다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릴 텐데요. 이 작업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다가 다년간 부분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할 것이고요. “조금 더 현장에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다년간 사업까지 포함해서 안내를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별도의 안내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여기까지 논의하고 담당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결을 요청드린 건이 2023년도 정시 공모지원신청의 건인데요. 자료상으로 장르에 대한 다년도 사업이 파악이 안 된 점은 아까 말씀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총괄표로 제시를 하는 부분은..... 오늘 의결해 주시는 것은 각 사업에 대한 신청 몇 건, 선정 몇 건, 선정내용과 선정금액에 대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너무 많고 내역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총괄표 형태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한 표고요. 이 표는 저희가 선정결과를 발표할 때 외부에 제시되는 표는 아닙니다. 전년대비 신청건수가 어떻게 되었고 장르별로 어떻다는 것은 저희가 선정결과를 발표할 때 안내되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고에는 문제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이른바 계열 비교의 정확함을 위해서 다년간 지원사업을 총괄표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추후에 대안을 내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다른 사안을 이야기 드려도 되나요?

**박종관 위원장** : 예, 홍태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태림 위원** : 예,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특정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심의결과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서 개인정보 문제도 있어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공개 논의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구요. 저희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논의를 했던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는 비공개로 전환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회의를 공개전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해 주셔도 좋고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없으시죠?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반대는 없으시고 비공개 진행 중에 말씀하신 위원님 의견과 같이 기권 1인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 기권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반대는 없고 기권 1인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찬성으로 의결하셨습니다. 찬성하셔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의결사항은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 1건이었고요. 보고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3일이었죠. 국회에서 늦은 시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보고안건을 상정하였고 이 사안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국회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안을 보고드렸을 때와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내년에 5,396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794억, 정부내부수입은 3,738억, 여유자금회수는 862억입니다. 지출 예산에서 사업비는 3,845억이고 기금운영비가 232억, 내부지출 178억, 여유자금운용 1,138억으로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확정되었습니다. 3번의 적립금 현황과 전망입니다. 2022년 말 추경에서 사업비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413억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여 739억 원대까지 적립금이 하향되었다가 내년에는 1,015억 원 정도로 회복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회 증감 및 조정 세부내역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정된 사업들은 총 5건입니다. 총 14억 5,000만 원이 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공연예술창작육성에 창작오페라 허왕후,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지정되었습니다. 신규로는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에 2억 원이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국제예술교류지원에 창작오페라 코리아웨딩, 어반브레이크 1억 원으로 해서 4개 사업은 계속하여 지정되고 있으며,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가 1개 더 지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체위에서 통과하고 예결위 단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대관료지원 53억 원, 다원예술창작지원 11억 원, 복권기금전입금 382억 원은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각 의원실과 협의했던 당인리문화공간 아카이빙 3억 원도 일반회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5번의 민간경상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현황은 2022년 당초 2,984억 원에서 2023년에는 3,178억 원 정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1% 정도 감액된 수치입니다. 7번의 과목구조 개편에서는 세부사업명이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에서 ‘예술가치의사회적확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 밑의 지출을 보시면 사업비는 2022년 당초 3,655억에서 3,845억으로 18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5.2%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고요.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생활안정자금 등 세부 사업들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창작지원과 예술인력육성이 보조사업연장평가 때문에 감액되는 기조에서 많은 증액을 하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문체부의 타 기금이나 예산들은 감액 폭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845억이고 기금운영비가 232억으로 해서 2023년도 예술위원회 사업의 총규모가 4,000억 원을 돌파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은 세부적인 총괄표는 간략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아래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5개 국회지정사업이 들어가면서 수치가 바뀐 부분입니다. 국회지정사업이 들어가면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해당 사업이 배치된 것입니다. 31쪽을 보시면 공연예술창작산실과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 지원이 그 해당만큼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예산 확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안으로 복권기금전입금 382억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복권위원회와 기재부, 문체부와 대응을 하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복권기금을 반납할 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반납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전입금이나 타 전입금에 대해서 더 증액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은 8기 위원회와 새로운 위원장님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전반적인 정부 차원의 자체 감사와 심층평가를 통해서 예산조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방금 보고받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의견

을 부탁드립니다.

**이시백 위원 :**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의결에 찬성하느냐는 말씀이 공모지원사업안에 대한 의결을 확정하신 거죠?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이시백 위원 :** 그런데 아까 진행상으로는 우리가 세부적인 안의 내용 중에 보면 결격되신 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공지된 13일을 수정해서 확정 의결을 하는 건가요? 원래 공지한 것은 13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박종관 위원장 :** 13일 이전이었죠.

**이시백 위원 :** 그러면 문제는 별로 없겠네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이시백 위원 :** 그러면 원안대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거죠?

**박종관 위원장 :** 확인을 했고요. 기권하신 분과 관련해서는 의사를 확인해서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시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7기 위원회의 잔여일정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려야 할 텐데요. 위원님들께서 운영하신 속기록과 회의록의 검토와 서명 등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여 업무를 마치신 이후에는 7기 위원회 활동을 기념하는 기념패 증정식과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명확하게 날짜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면 8기 위원회 선임 전에 혹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모두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예술가의 집 위원회 회의실에서 7기 위원회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행사를 가질까합니다. 기획조정부를 통해서 날짜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광역문화재단 등 기타 각종 예술지원기금이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회계연도 내에,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공모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현장과의 요청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오늘 심의 결과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하고요. 7기 위원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게 꽤 오래전 옛날이고 그 이후에 임명되어 오신 3인의 위원님들과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차기 위원회 정기 간담회나 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정하지 않는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고유목적인 한국예술을 지지 부양함으로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보람된 일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 최종 기념패 전달식과 간담회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연말 잘 보내시고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종료)